

익산시, 지역 농산물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급 주력

입주기업 수요 원재로 선점 확대 생산자간 매칭사업 전개 신선도·물량확보 용이·저가 납품 등 우수한 점 들어 공략

익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요 원재로에 대한 지역 농산물 공급의 선점·확대를 위한 기업과 생산자간 매칭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 농특산물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 전체에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매칭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60개 업체(외국인투자지역 1개 업체 포함) 중 13개 업체와 생산자간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양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원

재료 수요품목과 물량 파악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행정·기업·생산자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경우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신선도 등 품질조건이 우수한 점, 저렴한 가격으로의 납품 등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노력은 시범제배 1건과 계약제배 협의 4건, 우선사용 협의 8건, 구매약정 체결 1건 등의 결실을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농산물 7366t이 입주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2만7776t의 농산물이 식품클러스터 기업들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납품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체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는 만큼 원료공급과 계약제배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경 기자 yjy@



국립전주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한국학도남진흥원과 '조선 선비문화 활성화' 학술 업무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은 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학도남진흥원과 '조선 선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각 기관에 소장한 자료를 공유하고 전시에 활용하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시·연구를 위한 자료대여에 협조하고, 상호 공동 연구·학술 세미나 개최 등 학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주박물관은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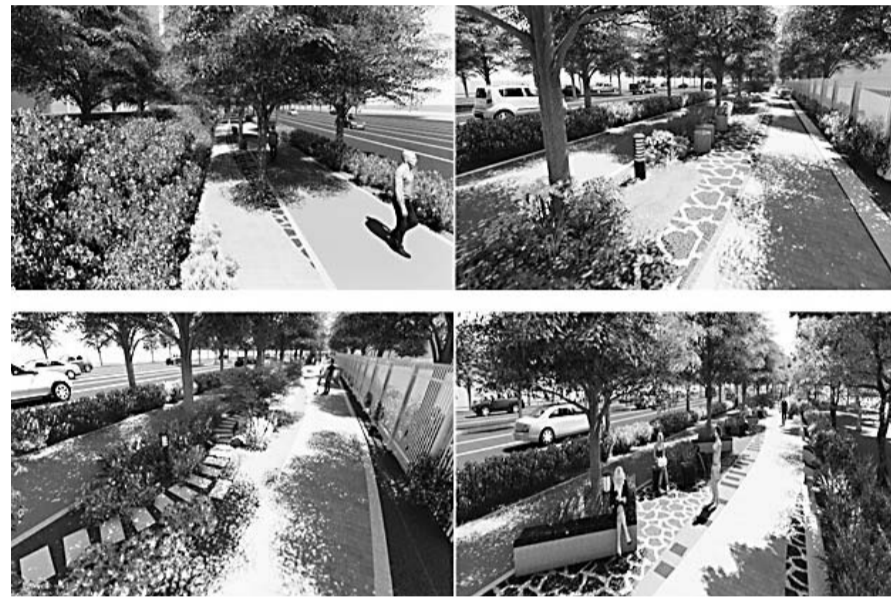
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의 고서·현판·책판 등을 수집·보존하고 DB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학도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고서·고문서 등을 수집·보존하고 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박물관은 그동안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진전 '무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물다'와 학술대회 '조선 선비문화와 호남'을 개최하는 등 조선 선비문화를 폭넓게 조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천만그루 가든시티 '스타트'

백제대로에 꽃·나무 가득 녹지공간 조성

전주시의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천만 그루 가든시티 조성사업이 백제대로 숲 조성 사업 공사와 함께 시작했다. 전주시는 인후동 명주골 네거리와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를 잇는 백제대로 곳곳에 녹지공간과 작은 숲을 조성하는 공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민선 7기 중요사업 중 하나다. 시는 올해 1단계 사업으로 꽃밭정이 네거리~삼천쌍용아파트 3단지 구간, 꽃밭정이네거리~우성아파트 정문, 우성아파트정문~신일아파트정문 등 3개

구간에서 가로 숲 조성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가득한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백제대로 넓은 인도에 58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시는 도심 중심대로에 녹지 축이 조성되면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꽃과 나무가 우거진 인도 위에서 지역의 예술자원을 만끽하고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곳곳에 녹지공간과 작은 숲을 조성하는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사업이 백제대로 숲 조성공사와 함께 시작했다. 백제대로(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쌍용APT 3단지 구간 내) 녹지공간 조성 계획안. <전주시 제공>

전북도 '도시숲'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2022년까지 1430억 투입 명상숲 133곳 설치 등

미세먼지 다발지역으로 고민에 빠진 전북도가 '도시숲' 조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전북도는 민선7기를 맞아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개선 및 도시열섬·폭염 완화, 휴식 등 힐링 효과가 있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1430억원을 투자해 도시숲 140ha, 가로수 160km, 명상숲 133개소, 전동마을숲 복원사업 32개소를 조성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도시 바람길 숲 및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전주시에 200억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해 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 가로변을 활용한 도시외곽 산림 등의 찬공기를 도심의 중심부로 이어 주고 확산 시킬 계획이다. 군산, 익산, 정읍시에도 65억원을 투자해 산단주변 경관개선 숲을 2019~2020년 조성한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시숲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도시숲 확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전북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시숲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시동

재보선장 일원 수협창고 등 5대 거점 개발 추진

중년 창업공간 확충도 군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재보선장 일원에 수협창고 등 5대 도시재생 거점을 개발하고, 27개의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 레저 숙박 시설 등을 확충한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5대 거점을 비롯한 부지 매입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민간투자를 통한 복합 레저 숙박 시설 조성 협약 체결 및 사업지역 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재보선장이 명소화 및 한화부지 도

시 숲 조성 등 관광인프라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객들의 유입을 유도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어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인수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속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립 성호도서관, 다문화 여성·가족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창군립 성호도서관이 국내 이주 다문화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문체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도서관 100여곳을 선별,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인과 내국인과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은 이사업 선정을 통해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태국, 캄

보디아, 필리핀 등 각국 도시를 구비해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 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이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과 내국인 간 1대1 협력을 통해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립성호도서관(063-560-8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군산해경, 해양오염 특별단속 13건 적발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한달간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점검 대상의 70%가 적발됐다. 군산항 3부두에서 5996t급 화물선이 충분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가 적발됐고, 비응항 선착장에 폐윤활유 20l가 실린 기름통을 방치한 9.7t급 어선의 선주 김씨(56)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오염행위가 심각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처벌할 방침이고, 나머지 10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박종목 군산해경서장은 "무작위로 선정된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박 16척과 1개 시설을 점검한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2척이 위반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소중함 바다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선적폐수(배 밑바닥 폐수) 무단 배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본 투자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의하였는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액세션,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 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